이기는 삶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지혜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스승은 학생을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한다는 말이다. 중국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의 〈학기(學記)〉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玉不琢(옥불탁)이면 不成器(불성기)요 人不學(인불학)이면 不知道(부지도)라. 是故(시고)로 古之王者(고지왕자)는 建國君民(건국군민)에 敎學爲先(교학위선)하니라.

雖有佳肴(수유가효)라도 弗食(불식)하면 不知其味也(부지기미야)요 雖有至道(수유지도)나 弗學(불학)하면 不知其善也(부지기선야)니라. 是故(시고)로 學然後(학연후)에 知不足(지부족)하고 敎然後(교연후)에 知困(지인)하니라.

知不足(지부족)한 然後(연후)에 能自反也(능자반야)요 知困然後(지인연후)에 能自强也(능자강야)니 故(고)로 敎學相長也(교학상장야)니라.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모른다. 이런 까닭으로 옛날에 왕 된 자는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임금 노릇을 함에 교와 학을 우선으로 삼았다.

비록 좋은 안주가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하고 비록 지극한 도가 있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 좋음을 모른다. 이런 까닭으로 배운 연후에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연후에야 막힘을 알게 된다.

부족함을 안 연후에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막힘을 안 연후에 스스로 힘쓸 수 있으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일과 스승에게서 배우는 일이 서로 도와서 자기의 학업을 증진시킨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다. 배움이 깊을수록 겸허(謙虛)해진다는 뜻으로 비유된다. 공부를 많이 하여 학문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막상 가르쳐 보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스승은 부족한 곳을 더 공부하여 제자에게 익히게 하며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남김없이 받아 더욱 학식이 풍부한 인재로 성장한다.

공자는 논어(論語) 자한(子罕)편에서 '후생가외(後生可畏)' 라는 말을 했다. 즉 후진 자는 젊고 기력이 왕성하므로 쉬지 않고 배우니 그 진보의 깊이는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서경(書經) 열명(說命)의 하편에 보면, 은(殷)나라 고종(高宗) 때의 재상 부열(傅說)이 '교학상장' 과 같은 뜻으로 '효학반(斅學半: 가르치는 것은 배움의 반이다)' 이라고 하였다.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다. 가르치기 위하여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가르치고 나면 오랜 세월 내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한 번 가르치는 것은 두 번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승리제단(勝利祭壇)의 성도(聖徒)들은 그런 면에서 행운아다. 참스승이신 조희성 구세주님으로 배운 완성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영생의 체계가 곤고히 정립이 되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건히 다져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힘이다. 그렇지만 성경이나 불경, 예언서 등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바른 마음가짐과 행실이 갖추어져야만 완성의 학문에 대한 교학상장(敎學相長)이 이루어져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는 여름에는 마음과 몸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요가는 탄력 있는 몸매와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 주는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종합 운동으로 자외선을 피해 실내에서도 할 수 있다.

뜨거운 햇살처럼 내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을 태우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근력을 향상시켜 탄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생활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몸의 중심 코어 강화에 도움되는 자세들!!

효능 잠자는 동안 경직된 척추를 이완하고 척추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척추협착증이 있거나 아침에 허리가 뻣뻣한 분들에게 좋은 동작. 고관절, 척추, 요추, 허리디스크, 복부가스 제거, 근육강화와 이완에도 좋은 스트레칭. 생활 속 요통 허리 근육의 피로를 풀어준다.

주의 몸의 유연성에 따라 무리하지 않도록 능력껏 꾸준히 한다. 누운 자세에서 경추, 척추, 어깨, 등, 고관절, 무릎에 힘을 빼고 바닥에 붙이도록 한다.

동작① : 등대고 누워서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며 전신을 스트레칭 해 준다. 20초.

동작② : 숨을 마시면서 한 다리를 90도로 올려서 발뒤꿈치를 밀어내며 발끝은 몸 쪽을 향한다.

양쪽 무릎을 쭉 펴준다. 턱이 들리지 않도록 가슴 쪽으로 당긴다. 1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동작③ : 90도 올린 다리를 숨을 내쉬며 무릎을 접어 가슴 쪽으로 당긴다. 1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동작④ : 허리와 등을 바닥에 붙이고 90도로 올린 다리를 양손으로 허벅지를 감싸 숨을 내쉬며 가슴 쪽으로 당긴다. 다리 안쪽의 내전근을 강화한다. 1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격암유록 新해설 제9회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밀실)에서 삼신이 역할하여 정도령이 무극대도를 완성하시느니라

정도령을 배출한 밀실

上慕劒旗下察走馬 상모검기하찰주마
吉運不離深探其地 길운불리심탐기지
天旺之近水唐之廣野 천왕지근수당지광야
鷄龍創業曉星照臨 계룡창업효성조림
草魚禾來之山 초어화래지산
天下名山老姑相望 천하명산노고상망
三神役活非山十勝 삼신역활비산십승
牛聲弓弓 우성궁궁
三豊白兩有人處 삼풍양백유인처
人字勝人勝人神人 인자승인승인신인
別天是亦武陵之處 별천시역무릉지처
世願十勝聖山聖地 세원십승성산성지
嗟我後生 차아후생
勿離此間弓弓之間 물리차간궁궁지간
天香得數 천향득수
三神山下牛鳴地 삼신산하우명지
牛聲浪藉始出天民 우성낭자시출천민
人皆成就 인개성취

목인의 가지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검과 진리의 깃발을 흠모하고 아래로는 말을 달리며 길운이 오는 것을 잘 살피도록 하여라. 궁궁의 십승지를 깊이 탐색하듯 찾아서 그 곳을 떠나지 마라.

그곳은 하나님의 기운이 왕성하게 서려있는 생명수의 못이 있는 광야인데 인류구원의 지상선국 건설을 뜻하는 계룡 창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새벽별이 비추는 땅이다.

새벽별은 정도령의 함자를 의미하고 조림은 조(曺)씨로 임한다는 뜻이다. 미륵진경에는 사죄천조구중생(赦罪天曺求衆生)이라 하였다. 하늘의 조씨가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이다. 소래산과 노고산은 천하명산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밀실이라는 곳에서 삼신(삼위일체하나님)이 역할하셔서 십승인이 나오시게 되어 있느니라.

6도 81궁 정도령은 실제로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있는 밀실에서 수도하여 무극대도를 완성하였다. 세상에서 말하는 산이 아닌 십승은 완성의 영적 엄마이며 궁궁이다.

화우로 삼풍해인을 가지고 오시는 하도낙서 양백의 주인공이 계신 곳이니 그 분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신 분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 좌정하신 분이다. 그 분이 계신 곳은 별천지요 무릉도원이다.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던 십승이 계신 성산성지 십승지이니라.

아, 나(하나님)의 후생들이여! 이 궁궁의 사이를 떠나지 마라. 감로 이슬은 혜와 백합꽃 향기 같은 하늘향기를 얻는 운수는 삼신산(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십승인 정도령) 아래 소가 우는 곳에 있느니라.

소 울음소리(정도령의 진리 말씀)가 낭자하니 비로소 처음으로 하늘 백성이 나오도다. 사람마다 모두 소원성취하리라.

弓弓矢口入於極樂 궁궁시구입어극락
乙乙矢口無文道通 을을시구무문도통
仁人得地近獸不參 인인득지근수불참
其庫何處 기고하처
紫霞南之朝鮮 자하남지조선
祕藏之文 비장지문
出於鄭氏自出於南 출어정씨자출어남
祕文曰海島眞人 비문왈해도진인
自出紫霞島 자출자하도
眞主赤黃之馬 진주적황지마
龍蛇之人 용사지인

궁궁을 알면 극락에 들어가고 을을을 알면 무문도통(문자에 없는 도통)하리라. 어진 사람이라야 그곳(궁궁지=십승지)을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짐승 같은 사람은 참례치 못하리라. 인(仁)이란 극기복례를 말하니 나를 이겨서 예(禮)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나라는 것을 이겨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짐(인仁)이 아니다. '내가 도통하겠다. 내가 영생 구원 얻겠다. 내가 무슨 사명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이 바로 도를 닦는다는 사람들의 병통이요 착각이다. 그야말로 허공에 말뚝 박는 행위이다. 영생구원(도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영생병 환자 구원병 환자라고 한다.

그 보배로운 곳은 어디인가? 신선의 자줏빛 노을이 어린 한반도 남쪽 한국이다. 정도령은 완성의 영모이기 때문에 그 엄마를 찾아 부르는 곳에서 영적 엄마이신 정도령의 감로 이슬은혜를 받으면서 진리 말씀을 듣고 깨치게 되어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비결서에는 20세기 후반에 정도령이 스스로 한반도 남쪽 한국에 나온다고 한다.

비문(秘文)에 이르기를 해도(海島=해우반도海隅半島의 줄임말=한반도) 진인이 스스로 자하도에 출현하시니 진주(진짜 구세주)요 적황색의 말을 타고 오시는 진사성인이라고 하였다. 적(赤)은 남방이요, 황(黃)은 오십 토(五十 土), 마(馬)는 천마(天馬)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한반도 남쪽 한국에 십오 진주로 오신 분이 진사성인이시라는 말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허만욱 승사 칼럼

기도에도 참과 거짓이 있다

성경에는 '나' 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이 욕심을 부려도 죄가 되고,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하여도 죄가 되며, 또한 심지어는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여도 죄가 된다(정도령).

아무리 간절한 기도라도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귀의 기도에는 응당 마귀가 응답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 마귀의 응답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라도 받은 듯 호들갑을 떠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 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피를 썩게 하므로 죄가 된다는 점이다.

성경에도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였으니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무심코 행하는 기도는 거짓기도에 불과하므로 정성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성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절실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기도를 하는 자의 심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심으로 거짓없는 기도라면 백퍼센트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기도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신은 마귀이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난제(難題)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일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이긴자께서 밀실에서 고도의 연단을 받으시는 동안 계속하신 기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몸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좋으니 부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위의 기도는 이미 '나' 라는 주체의식이 소멸단계에 처해 있던 분의 기도이므로 우리들은 감히 시도하기조차 어렵지만 서두르지 말고, 나를 죽이는 박멸소탕 기도를 연속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야 참기도요 내가 행하는 기도는 거짓기도이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9261-9974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53)474-7900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43)233-6146
충주제단 : 010-9980-5805
横浜祭壇 : (045)261-6338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久留米祭壇 : (0942)21-4669
岐阜祭壇 : (0584)32-1350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51-3150
Piladelphia : (215)722-2902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6142-1738136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